

# Global Goings-on

\*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 Mental Health and Work United Kingdom

OECD. 146p. 2014. ISBN(9789264204980)

노동 인구의 정신 건강 악화 논쟁은 많은 OECD 국가들의 노동 시장 및 사회 정책의 문제가 되고 있다. OECD는 젊은 사람을 포함하여 정신 쇠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고용 기회를 개선하는 정책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정신 장애로 인한 장기적인 질병과 장애를 예방한다.

OECD 전반에 걸친 정신 건강 악화는 점점 사회 및 노동 시장 정책의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영국은 사회 전체에 대한 정신 질환의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가장 진보 된 국가 중 하나이다. 영국에 대한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과제를 OECD 국가에서 다루는 방법을 찾는 보고서 중 하나이다.

다른 보고서로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의 상황을 확인하는 보고서가 있다. 또한 이들 아홉 보고서는 좋은 정신 건강 및 직업 정책에 대

한 기록을 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각 보고서는 자세한 국가별 정책 권고 사항의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작업은 고용 분석 및 정책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OECD 이사회의 사회 정책과 공동으로 실시되었다. 보고서는 Christopher Prinz의 감독하에 Shruti Singh에 의해 제조되었고, 통계 작업은 Dana Blumin와 Maxime Ladaique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코멘트는 Mark Keese와 Stefano Scarpetta에 의해 제공되었다.

## OECD Reviews on Local Job Creation Employment and Skills Strategies in Australia

OECD. 90p. 2014. ISBN(9789264207882)

OECD 국가, 정책 입안자들은 직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최근의 금융 위기와 경기침체는 실업률 상승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 걸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일부 국가의 공공 예산을 축소하면 정책 결정자는 이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 및 훈련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은 노동 시장이 되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OECD 지역 경제 고용 개발(LEED) 프로그램은 양질의 고용과 생산성 증대의 지역 노동 시장 정책의 기여를 국제 간 비교 연구하는 지역 고용 창출에 대한 OECD 보고서를 개발했다. 또한, 호주에서 기관과 고용 및 기술 정책에 관련된 기관의 범위를 보고 했다. 심층적인 작업은 Ballarat-Bendigo와 Ipswich-Logan 두 개의 우선 고용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이 보고서의 주요 초점은 기술과 고용 문제에 대한 지역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지방 고용주, 비즈니스 리더들과 사회단체들의 지역 고용 조정자(LECs)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 OECD. 140p. 2013. ISBN(9789264208148)

고령화라는 난관 앞에 많은 OECD 국가들은 생산연령 인구의 고용지속성을 높여야 할 압력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네덜란드에서 추진된 고용정책을 개관하고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어떤 정책이 가능한 지를 밝히려 하고 있다. 지속적인 근로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연금 기여 기간을 보다 장기화할 것을 촉구하고 금융정보에 대한

이해가 낮은 그룹을 중심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정보와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고용주는 임기나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근거를 둔 나이 중립적 고용 및 임금 정책을 도모해야 있다. 노령 근로자의 고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령 실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위험에 처한 인구를 목표로 한 보다 효과적인 고용활성화 정책을 개발하는데 네덜란드 지방정부의 “Work-First” 프로그램의 폭넓은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Research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World Health Report 2013**

■ WHO. 168p. 2013. ISBN(9789241564595)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은 누구라도 필요 할 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되 그로 인해 경제적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12월 UN에서는 모든 정부가 그 국민에게 양질의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나라들마다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과정엔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난관이 있는데 여기에 연구(research)는 난관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The World health report: research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연구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중, 저소득 국가들이 세계 곳곳의

사례연구들을 활용해 보건 연구에 투자를 늘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밝히며 이러한 유형의 연구를 강화할 방법을 제안한다.

**Aging and Employment Policies:  
Norway 2013: Working Better with Age**

OECD, 125p, 2013, ISBN(9789264201484)

급격한 인구고령화의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공공사회지출의 지속가능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더 나은 근로유인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이에 OECD에서는 2011년의 OECD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를 통해서, 고령의 경제활동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행된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리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5년에 Working Better with Age라는 보고서를 출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 큰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서, 노르웨이에 대한 심층적인 케이스 연구이다.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의 노인의 고용률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주로 2011년에 개혁을 시행한 연금정책의 변화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르웨이는 근로유인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62~75세 사이의 유연한 은퇴를 허용하는 2011년 연금개혁을 시행하였다. 연금급여는 보험수리적으로 계산되었으며, 기대수명의 변화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였다. 연금과 근로소득은 어떠한 재정적인 제한이 없이 결합될 수 있었고, 은퇴자들의 고용은 추가적인 연금관리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이 개혁의 단점은 지금까지 모든 연금 수급자 중 겨우 약 40% 정도만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장애인에 대한 고령연금은 이전의 연금제도와 거의 동일하였으며, 근로유인은 공공영역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한 것이 없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의 법제는 연금수급연령 및 은퇴연령과 관련된 연령제한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노르웨이에는 '추가적인 연금관리의 증가에 대한 연령제한, 고용보호법제 등과 관련된 법들' 과 '법적 은퇴와 관련된 규제들' 사이의 통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Work Environment Act는 근로자가 70세가 되면, 고용주에 의해서 해고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업연금은 주로 67세를 연금수급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의 기업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고령의 근로를 위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와, 노인들이 풀타임 일자리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의 노인 고용률 증진 정책에 대해서 세 가지의 측면 - 근로유인제고, 고용주의 측면에서 노인고용에 대한 어려움 제거, 노인의 근로능력 증진 - 에서 제안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초저출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률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OECD Competition Assessment  
Reviews: Greece**

■ OECD. 386p. 2014. ISBN(9789264206090)

그리스는 유로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그리스는 GDP의 급격한 축소와 실업의 증가(특히, 청년들의)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과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공재정을 강화하고 구조적인 개혁을 수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경쟁력 강화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이지만, 최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상품시장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규제되어 있다. 경쟁의 부족은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기업들의 진입과 확장을 저해하고 외국투자와 혁신을 저해하여 생산성 성장을 가로막는다.

이에 따라, OECD와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의 경제의 4가지 핵심 부문들- food processing, retail trade, building materials, and tourism -의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적 장애물들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의 낮은 경쟁수준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Competition Assessment of Laws and Regulations in Greece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2012년에 동의하였다. 위의 네 가지 부문들은 GDP의 21%를 차지하며 고용의 약 27%를 차지하는 미래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다.

그리스 경제의 핵심 부문들의 법제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OECD Competition

Assessment Project는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혁이 가능한 555개의 문제가 있는 규제들과 329개의 조항들을 규정하였다. 비록 증가된 경쟁을 통한 모든 이익들을 양적화하기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증가, 매출증가, 낮아진 가격으로 인해서 그리스의 소비자들은 GDP의 약 2.5%인 매년 약 52억 유로의 이익을 얻는다고 추정된다. 이것은 그리스에서 개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정책제안들을 제안하여, 그리스 정부의 구조적인 개혁 아젠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정책적 제안들은 그리스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자극하고, 앞으로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의 경제에 대한 이 보고서는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해하고 진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편역 | 김선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라기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 최요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